

“행복한 기성복 재단사 될래요”

요즘 네이버 커뮤니티 서비스가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소식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이람 커뮤니티 팀장이 NHN으로 옮기면서 나온 이야기다. 1억원대 연봉자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블로그(blog)가 '인 미디어'라는 하나의 새로운 문화코드로 자리잡고 있는 이즈음, 이람 NHN 커뮤니티팀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신승철 기자 / 사진 이혜성 기자



“언젠가 네이버 블로그는 기성복 같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겹연쩍게 건넌 말 같은데, 웬일인지 아주 행복한 기분이 들었죠. 블로그가 옷이라면, 전 기성복 재단사가 맞는 것 같아요.”

이람 NHN 커뮤니티 팀장은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비유했다. ‘설치형 블로그’는 맞춤형처럼 멋지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맞춤형 옷을 스스로 맞춰 입을 재주는 없기에, 그리고 옷을 맞춰 입을 재주는 없더라도 옷을 입고 대화할 말은 많기에, 옷을 만들 줄 몰라도 쉽게 골라 입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자신이 할 일이라는 것이다.

“옷안에 담겨있는 하나하나의 멋진 영혼들을 만날 수 있으니. 어떤 옷을 입으면 어때요? 재주 있는 사람은 멋진 맞춤형을, 기성복도 괜찮은 사람들은 멋진 기성복을 입으면 되죠. 물론 저 역시 멋진 맞춤형들이 참 좋아 보여요, 그들 모두 진지하고, 블로그를 사랑하고, 대화를 사랑하죠. 하지만 제몫은 쓸만한 기성복을 만드는 것 같아요.”

온라인 가치, ‘유용함’에서 ‘뿌듯함’으로

지난 2003년 6월 싸이월드에서 NHN으로 새 동지를 틀면서 두려움도 앞섰다. 커뮤니티 서비스시장에 뒤늦게 뛰어든 만큼 ‘어떤 의미를 던져야 할까.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원할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이득이 있기 때문에만 시작하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유저들이 원하고 이득이 있어야만 늦은 시작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다.

“잘된 커뮤니티가 가져다주는 결과들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페이지뷰의 증가, 잠재적인 로열티의 증가, 타겟 마케팅의 가능성 증가 등 굳이 열거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 결과를 얻고 싶은 것이 커뮤니티 도입의 동기라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과는 얻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HN의 네이버 블로그에는 배너광고를 찾아보기 힘들다. 당장의 수익을 쫓다보면 잃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수익성은 중요하다. 잘못해서 없어져버리면, 그만큼 무책임한 것은 없다. 그렇게 되면 유저에겐 기억만큼 소중한 기록과 자산이 없어진다. 그래서 서비스적으로도, 비즈니스적으로도 아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커뮤니티는 동기가 중요하다는 말에 100% 동의하지는 않아요. ‘유용함’과 ‘재미있음’에서 ‘뿌듯함’과 ‘행복함’으로의 이동, 그걸 검색과 게임이 주던 가치에서 커뮤니티가 주는 가치로의 이동이며, 커뮤니티 도입의 동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온라인상에서 유용한 정보만이 중요시됐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게 그녀의 지론. 즉 유익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를 올린 사람들은 더욱 중요하다는 게 그녀의 주장이다. 이게 참다운 커뮤니티 세상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요즘 블로거나 카페유저들과의 이야기가 잦아질수록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잘못되면 고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실감한다. 이게 동기에 대한 보답이란 생각에, 뿌듯하고 행복함마저 느껴진다고 한다. 신기하게도 그녀가 제공하려는 가치가, 그녀에게 똑같은 가치로 갚아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의 어머니’ 되고파

그녀는 올해로 직장생활 10년차다. 쪽 인터넷 커뮤니티만을 고집했다. 그 일이 좋았기 때문이다. 대학시절부터 유난히 PC통신 동호회(나우누리 ‘찬우물’, 하이텔 ‘바동모’ 등) 활동에 푹 빠져 살았고, 이제는 천직으로 여긴다.

인터넷이 대중화되는 동안 한결같이 커뮤니티 세상을 지켜보다 보니 이제는 업계 대가가 됐다. 싸이월드에서 NHN으로 이직하자 ‘1억원대 연봉자 대열’에 합류했을 것이라는 소문도 무성했다. 이에 대해 그녀는 “사규상 연봉을 밝힐 수는 없지만 1억원은 넘지 않아요”라고 겸연쩍게 말하며 “창업멤버였던 싸이월드를 떠나는 게 괴롭긴 했지만 꿈꿔왔던 커뮤니티와 검색의 조화를 위해 선택한 길”이라고 말했다. ‘검색되지 않는 글은 정보가 아니라’는 생각에 검색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NHN의 네트워크를 커뮤니티에 결합시키고 싶은 욕구를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기술은 대중화돼야 된다’고 믿는다. 어느덧 블로그는 명령을 막론하고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기에 네이버 블로그 유저들이 어려운 말 익히지 않아도 그냥 쓸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한다. ‘코멘트’ 대신에 ‘덧글’, ‘트랙백’ 대신에 ‘이어말하기’, ‘퍼머링크’ 대신에 그냥 주소를 꺼내 놓고, RSS 리더기 없어도 블로그 홈에서 이웃들의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 참이다.

소망을 묻자 “하고 싶은 것은 ‘땀방에 헤딩’, 얻고 싶은 것 ‘성공의 경험’”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달성한 게 아니냐” 했더니 “아직 멀었다”고 한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우연히 와서 우연히 검색하고, 입 다문채 뭔가를 본 다음에 훌연히 빠져나가 버리는데, 정말 거기에 말하고 이해받고, 공감받고, 그래서 더 행복해지게 된 게 체온을 느끼게 그렇게 해보고 싶다고 한다. 볼일 다 봐도 계속 있고 싶고 틈만 나면 들어오고 싶고, 그래서 네이버가 없으면 진짜 불편하고 못 살겠다 할 정도로 자리잡는데 일조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고 말한다. 먼훗날 이른바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의 어머니’로 불려지고 싶다는 야무진 꿈도 지녔다.

일에 대해서는 철저한 욕심쟁이인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http://blog.naver.com/ramrhee>)에도 꼭 방문해 달라는 당부로 인터뷰를 마쳤다. 